

# 광주는 인공지능에 올인, 전남은 관광·미래농업에 집중

## 2020 국비 신규사업으로 본 전국 광역단체 미래 먹거리

광주일보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2020년 신규사업을 통해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지역 미래 발전의 핵심인 신규사업은 지방재정을 탄력히 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산업에 올인하고, 전남도는 비교 우위 자원인 관광·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전남도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을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산업과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한 로봇·자동차산업과 소재부품 산업을 차세대 지역산업에 방점을 뒀다.

◇광주시 '인공지능' 전남도 '미래농업' =광주시와 전남도의 2020년 예산에

### 대전 바이오산업 예산 반영

### 충남 해양바이오 전략산업 지정

### 경북도·대구시 5G 기반

### 로봇·소재부품산업에 방점

반영된 신규사업과 사업비는 광주 94건 1968억원, 전남 58건 610억원이다. 광주시 신규사업의 방점은 인공지능(AI)에 쏠린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626억원(총사업비 2843억원),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비 12억원(90억원),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비 24억원(90억원), AI기반 사회적 취약자 실버케어 기술개발 10억원(100억원) 등이 눈에 띈다. AI 산업이라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AI 집적단지 조성에 나서고, 관련 인재 양성 및 기술 개발에

산과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다만 광주시의 경우 예산과 역량을 AI라는 미래산업에 쏟아붓는 게 적절하다는 물음표가 여전하다. 자율주행·데이터·헬스케어 등 AI 산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AI 특성이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와 기술 확보와 민간 자본 투자가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광주가 과연 AI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신규사업만 놓고 볼 때 전남도가 광주시와 비교해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사업 면면을 보면 미래 역점 사업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한 분야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의미다.

58건의 신규사업 가운데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지원 21억원(총사업비 990억원),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사업 2억원(490억원), 광양항 모도 항만재개발 재정지원사업 19억원(282억원),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 10억원(450억원),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 13억원(350억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연

육교) 개설 15억원(1156억원), 한국정원센터 건립 5억원(260억원) 등이 총사업비와 사업 성격에서 눈에 띈다. 광양항 배후단지 지원의 경우 광양항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경도 연륙교 개설 사업은 관광산업 활성화,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은 농도 전남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받아들여진다.

◇대전은 '바이오메카', 충남은 '해양바이오' = 대전시는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를 지향하며 관련 신규 사업비를 2020년 예산에 다수 반영했다.

총사업비 2000억원에 이르는 보스턴형 바이오 랩센터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새롭게 확보했고,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60억원)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100억원을 들여 구축할 생활밀착형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체의 분자진단시스템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신속한 제품 개발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산업 육성

사업비 45억원(292억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대전시는 또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비도 다수 확보했다. 나노소재 실용화 혁신 플랫폼 구축 3억원(245억원), 스마트적층제조 공정혁신 지원고도화 사업 25억원(93억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49억원(200억원), 실패·혁신 캠퍼스 조성 40억원(100억원),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 5억원(242억원) 등이다.

충남도는 해양 신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삼고 관련 신규 사업비를 다수 확보했다.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 및 산업화·제품화·기술 인증 등을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비 12억원(350억원), 해양바이오뱅크 구축 43억원(290억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10억원(340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2020년 신규사업 36건에서 9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15억원, 히토

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 10억원, 5G기반 VR/AR(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센터 5억원 등이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으로 여겨진다.

대구시의 경우 미래 신성장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국비를 확보한 점이 눈에 띈다. 신규사업예산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사업비 40억원,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조성 사업비 20억원에 기존 사업인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사업비 30억원을 확보, 미래형 자동차 도시로써 입지를 다졌다고 자평했다. 5G 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 기반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에서 38억원을 반영했다.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에도 신규사업을 다수 확보했다. 4차산업 대응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사업 20억원, 섬유·의류 등 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20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 사업 100억원, 제 3산단 전략사업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10억원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네 번째)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전대 '대선 전초전' 지적에 "그렇게 안봐"...마이웨이 확인

###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1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며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인 출신 여야 국회

의원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는 "많은 의원이 국가와 국민과 당을 위한 충정 어린 고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자신에 대한 당내 견제가 거세지는 것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총선 이후 (지지율이) 10% 이상 많이 올랐다가

조정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은 대권주자가 당권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의 견제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코로나 국난극복위는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묻자 "열심히 해왔다. 여러 과제

가 있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방역 성과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아무 데나 들이밀고 그런 것 하지 말자"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한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정인 언론을 위해, 언론인들이 더 많은 존경을 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1조2000억원 투자·3만명 거주

### 광주시·LH·도시공사 2025년까지 공영개발

인공지능(AI) 등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분거지가 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식과 미래상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기투자금을 포함한 사업비 1조2400억원을 투자해 내외국인 3만명 안팎을 수용할 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은 광주 남·북·광산구 일원 4개 지구, 총 437만1000㎡(4.371km) 규모다. 지구별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광산구 덕림·분광동) 184만7000㎡ ▲AI 융복합지구(북구 오룡·대촌·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110만6000㎡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 (남구 압촌·석적·지석·대지·칠석동) 93만2000㎡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 (남구 압촌·지석동) 48만6000㎡ 등이다.

개발사업 시행은 광주시, 한국 토지주택공사, 광주 도시공사가 맡아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짧은 기간 저비용, 고효율 방식을 구상한다.

총사업비는 자동차 3359억원, AI

3694억원, 에너지 4048억원, 에너지 II 1332억원 등 1조2433억원이다. 이 중 4959억원은 이미 투자됐으며 남은 7474억원은 국비와 시비 각각 15%, 공기업 등 기타 70% 비율로 조달한다. 토지 용도별로는 산업시설 47%, 지원시설 38%, 주거 13%, 상업 1%, 기타 1% 등이다.

계획 인구는 2만9256명으로 설정됐다. AI 지구가 외국인인 포함해 2만 5049명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 4613명, 에너지 II 2685명, 자동차 1409명이다.

외국인 교육기관은 AI 지구에 인접한 광주 외국인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개교 추진 중인 한전공대 등이 거론된다.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 내 국제 메디컬 센터가 활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에너지 지구에는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한전 등과 연계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AI지구에는 세계적인 연구소를 끌어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요람을 만들겠다"면서 "지구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투자 유치로 혁신 생태계를 구성해 외국인 기업 운영과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